

※ 이 콘텐츠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빈티지한 멋이 살아있는 강화 조양방직

인천 마을 산책

강화 조양방직은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방직공장이다. 1960년대까지 최고 품질의 인조직물을 생산하던 조양방직은 이후 20~30년 정도 폐공장으로 방치되다가 서울에서 유럽 빈티지샵을 운영하던 이용철 대표를 만나 탈바꿈했다. “쓸모없는 물건은 없다”는 신조로 공장 형태를 그대로 남기고 심지어 마네킨과 트랙터까지 낡은 물건을 끌어들이 빈티지한 분위기를 물씬 자아낸다. '신문리 미술관'이라는 또다른 이름이 있는 이곳은 강화의 관광명소이자 이색카페로 유명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의 주택단지에 위치한 '강화 조양방직'은 총 2500여 평의 대규모 폐공장이 몇 해 전 새 주인을 만나 개조된 공간이다. 강화에 오면 꼭 들려야 할 관광 명소이자 이색적인 카페로 유명하다. 버려졌던 공간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여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조양방직 전시품

조양방직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장의 형태를 그대로 남겨둔 건물들과 문밖에 세워진 빈티지한 간판의 모습이다. 뾰족한 삼각형의 공장 지붕과 한옥의 구조는 과거 일제강점기의 건물임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입구 앞을 살펴보면 찾아와주시는 손님들의 힐링을 위한 공간임을 표명하고 있는 알림과 더불어 창고를 지나 오른편 건물 입구로 향하게끔 안내사향이 붙어있다. 안내를 따라 오래된 공장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한 창고 건물을 지나면 넓게 트인 공장 앞마당과 그 바깥에 서있는 오래된 옛 버스, 때 묻은 마네킹 등이 이곳을 찾아든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끈다. 강화 조양방직은 대부분의 인테리어가 철재와 앤티크 소품을 이용하여 전시되어 있다. 공장터 안에 자리 잡은 낡은 자전거와 오래된 동상들, 고장 난 트랙터, 문 닫은 유원지에서나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회전목마, 칠이 벗겨진 빨간 전화박스 등 통일성이 없는 다양한 옛 물건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내부로 들어서면 커피와 케이크를 주문할 수 있는 주방이 있고, 넓은 카페가 자리하고 있는 홀은 과거에 사용하던 공장 기계들을 테이블로 꾸며 그대로 옮겨놓았다. 이제는 사용하지 못하는 재봉틀을 이용한 테이블이나 오랜 미용실 의자를 활용한 자리들은 손님에게 조양방직만이 갖는 독특함을 전하고 있고, 벽에는 다양한 그림들뿐만 아니라 1954년 조양방직의 조업 모습을 찍은 사진이 걸려있어 과거에 이곳이 정말로 공장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준다.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 이 창의적인 인테리어들은 마치 미술관의 전시회를 연상시키며, 입구에서 본 간판에 쓰여 있던 '신문리 미술관'이라는 조양방직의 또 다른 이름을 되새기게 한다.



조양방직 외부

과거의 강화 조양방직은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의 방직공장이었다. 당시 강화는 조양방직을 비롯한 수십 개의 방직회사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국내 섬유산업을 주도하는 최대의 산업단지로서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방직공장들이 하나둘씩 대구나 구미 등지로 옮겨가면서 그 많던 방직공장들은 모두 문을 닫게 되고, 조양방직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게 되었다. 1960년대까지 최고 품질의 인조직물을 생산하던 곳으로 이름 높던 조양방직은 2013년에 TV 드라마 '백년의 유산'에서 조양방직 사무실이 옛날국수집으로 나오며 사람들에게 드문드문 알려졌지만, 이를 인수한 이용철 대표의 손에 의해 탈바꿈하기까지 20~30년 정도 폐가로 방치되어 있었다.

본래 서울 인사동에서 상신상회라는 유럽 빈티지 샵을 운영하고 있던 이용철 대표는 강화에서 사진작가로 활동을 하던 지인이 보여준 사진을 통해 조양방직을 알았다. 처음 그 낡은 폐가의 사진을 보았을 때는 그 또한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당시 조양방직의 모습은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있었고, 등나무로 뒤덮여 있어서 무섭기까지 했다. 그가 생각하기에도 이 넓은 폐가를 새로운 공간으로 가꾸는 일은 쉽지가 않은 모험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자꾸만 자신의 머릿속을 맴도는 조양방직의 모습에 이 대표는 아내와의 상의 끝에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건축물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고 말한다.

공사부터 쓰레기를 치우는 것만 몇 달이 걸렸다.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미래에 대

한 불확실성은 무거운 짐처럼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공장을 리모델링하는 데만 1년여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는 조양방직을 가꾸어 나가며 하나둘씩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며 기쁨도 느꼈지만 마음고생도 무척 많았다고 했다.

| 오시는 손님들이 식사하지 않도록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며 나아가고 싶어요.

그가 오래된 물건에 관심을 갖고 조양방직이 이와 같은 공간의 형태를 띄게 된 것은 “쓸모 없는 물건은 없다”는 믿음 덕이라 했다. 이용철 대표는 지금의 조양방직의 형태를 만들기까지 이를 이야기하며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된 지금 또한 완성 단계가 아니며, 앞으로도 천천히 이 장소의 미래를 그려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한다.

사물은 비록 숨을 쉬지는 않지만 그 나름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어떠한 물건이든 처음 만들어진 용도와는 무관하게 얼마든지 의미를 부여하고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철학이자 조양방직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강화 조양방직은 이처럼 단순히 지역의 이색카페만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선 하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물의 가치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배움터이자 예술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집필자

(주)더페이퍼

시대/연대

· 시대 : 현대-현대(1945.8.15~현재)

연관키워드

- 일제강점기
- 인천광역시
- 신문리 미술관

연관tag#

- #카페
- #방직공장
- #문화공간
- #강화

초등교과과정연계

· 3학년 ▶ 국어/사회

멀티미디어자료 (4)



이미지
조양방직 전경



이미지
조양방직 전시품



이미지
조양방직 외부



이미지
조양방직 내부

연관 이야기자료 (5)



인천광역시 > 강화군 강화문화원

창왕과 영창대군이 죽은 강화 살창리마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에 살창리마을이 있다. 살창리(殺昌里)는 '살채이'라고도 발음하는데, '창왕이 살해당한' 마을이라는 뜻이다. 고려가 멸망할 때 우왕의 아들 창왕이 왕으로 등극했다 폐위되어 이 마을

로 와서 살해당했고, 조선 광해군 때 그의 이복동생 영창대군(永昌大君) 역시 역모의 누명을 쓰고 이 마을로 유배되어 뜨거운 방에서 살해되었다.

인천 지역의 지명유래

◦ #역사적 인물#인천지명유래

서울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308호

전화02-704-2322팩스02-704-2377

COPYRIGHT(c) 2018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s.

- 인천광역시 > 강화군 강화문화원

알싸한 순무김치와 맛의 궁합을 이루다, 강화 순무굴밥

굴밥은 물에 불려 둔 쌀로 밥을 짓다가 뜬을 들일 때 굴을 넣어 지은 밥이다. 굴밥은 예로부터 서해안 굴의 주산지였던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향토음식이다. 특히 강화도의 순무굴밥은 강화도의 특산물인 순무와 굴을 이용하여 만든 굴밥으로서 강화도에 서만 맛 볼 수 있는 강화도식 굴밥이다.

지역 향토 음식

- #인천별미#굴



지역 향토 음식

- #메밀#국수#메밀국수#인천별미

ALL RIGHT RESERVED.

인천광역시 > 강화군 강화문화원

메밀반죽을 ‘쌉둑쌉둑’ 자른 면으로 끓인 칼쌈두기

칼쌈두기는 멸치와 바지락 육수에 메밀반죽을 썰어 만든 면을 넣고 익힌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향토음식이다. 메밀반죽을 썰어 넣을 때 칼로 ‘쌉둑쌉둑’ 잘라 넣는다고 하여 칼쌈두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칼쌈두기는 강화도의 특산물인 순무김치와 매우 잘 어울리는 향토음식이기도 하다.